

기고

경청(傾聽)에서 시작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결실을 맺어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역시 양적 성장을 목표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실적을 과시하기에 좋은 공공 인프라 확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작게는 몇십억원부터 많게는 몇백억원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중 약 40%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는 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며, 지역구인 봉산·수북·대정면 주민뿐만 아니라, 담양군 12개 읍면의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접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개선을 끊임없이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농기계도 다니기 힘들다”는 주민의 하소연, 수역원이 드는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일의 불편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민들의 밝은 얼굴에서 의정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번지르르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고향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자 ‘들음 청(聽)’의 구성을 보면 귀(耳)+임금(王)+열개(十)의 눈(目)+하나(-)의 마음(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처럼 귀를 열고, 열 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즉, 단순히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상대를 살피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잘 듣는 것을 경청(傾聽)이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잘 듣는 것이야말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흔하지만, 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최대 덕목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빛나는 주민들은 권한있는 자의 책임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생활민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민원 하나라도 성실히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민생 중심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작은 것부터 잘 듣고 충분히 배려하는 것,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 때 주민은 행복합니다. 담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조관훈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다. 정권이 바뀌어도, 최첨단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최첨단 속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인데도 그렇다. 보편적인 인간보다 더 영리한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엄청난 생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 편리함과 안온함을 앞질러가는 고통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기타 개개인들과 각각의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 씨줄날줄로 얽혀서 살바싸움 하느라 난리법석들이다. 왜 그럴까.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세상을 떠날 때쯤에야 겨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소란스럽게 살아가는 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온몸과 마음을 찢겨거리게 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 글귀가 시원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었으면 한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

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변화하려고 하질 않는다. 거의 자기위주의

일방통행식이다.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좇아주기만 바랄 뿐이다. 토론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TV토론만 봐도 그렇다.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각기 자기주장만 하다가 퇴장한다. 다른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를 한 다든지, 토론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다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뒷 때문에 했는지도 모를 정도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각자 상대방 생체기 내기에만 계거품을 몰고 있다. 갖은 패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만이, 아무런 잘못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다 살아갈 즈음, 묘비명의 주인공처럼 결국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스트레스로 삶의 질만 떨어지는 생을 살다가 말이다. 오호 통재라. 애재라.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은 집이다. 하루의 끝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는 집이 반드시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전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6,240건 중 주택화재는 5,179건으로 약 19.7%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194명 중 120명(약 61.9%)이 주택화재로 인해 발

안전한 우리 집을 위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 발생 비율에 비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재인한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화재의 피해가 큰 이유는 초기 대응의 어려움 때문이다. 아파트와 달리 많은 주택에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늦어지

면, 피해는 순식간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안전은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소화기와 감지기, 이 작은 준비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대성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음력 1월 11일)

43년생 오간히 쓸 수 있는 도음을 받아보자.60년생 좋은 소리 보다는 쓴소리 들어보자.72년생 근사하고 멋있게 날개 펴려진다.84년생 부끄러운 성적 반성문을 써내자.96년생 떠오르는 셋별 주인공이 되어보자.

49년생 못내 아쉬워도 포기하고 돌아서자.61년생 모두의 반대에도 찬성을 지켜보자.73년생 사랑하고 싶어진 만남을 가져보자.85년생 눈치 보던 동거를 포기해.4197년생 썩썩 자란순수규를까지 달아준다.

50년생 내심 했던 우려사항으로 변해진다.62년생 건넌침분위기 연신 웃음이 난다.74년생 약해는 모습 쓸쓸함이 더해진다.86년생 틈틈이 했던 공부 빛을 발해준다.98년생 애정이 담긴 선물은 받아보자.

51년생 걱정 근심 없는 동심 신나게 놀아보자.63년생 박치고 아름다운 감동에 빠져보자.75년생 편견을 지워내야 진짜가 보여진다.87년생 따로 있는 역할 비싸게 끌어보자.99년생 애따우며 기다린 소식을 들어보자.

52년생 오는 경기는 정반대음이 더해진다.64년생 흥분한 자신감에 정 표현 해보자.76년생 안락어도 배부른 호시를 누리보자.88년생 어둠이 내리야 원하는 걸 얻는다.00년생 이상과 다른 현실 고민을 더해보자.

53년생 호안장담은 밀뎀 작도 초라해진다.65년생 여기저기 인기 찾는 곳이 많아진다.77년생 원래의 자리 중심으로 돌아와보자.89년생 기대 초 않았던 천사를 받아보자.01년생 갈라려 하지마라. 단점을 보완해자.

54년생 급해지는 욕심에 심표를 찍어내자.66년생 다른 영역으로 눈길을 돌려보자.78년생 도어.면도 모습부수를 던져보자.90년생 칠언는 방식이다. 편견을 들어보자.02년생 미루고 있던 속세 비뻔하게 해야한다.

55년생 거친 황무지에도 씨를 뿌려보자.67년생 남다른 용기 새로운에 도전하자.79년생 먹구름 흩어지고 무지개가 떠온다.91년생 여럿 중에 으뜸입자가 단단해진다.03년생 허세도 경도것 마음으로 들어온다.

56년생 부자 된 실감이 미소도 편안하다.68년생 똑똑한 교만 여지없이 들려진다.80년생 최선을 다했다로 마무리를 해.4192년생 구관이 명관분부대로 따라하자.04년생 열심하는 노력 기쁨이 되어온다.

57년생 불분한 이익보다 명예가 우선이다.69년생 궁금했던 반응 합격 경을 받아낸다.81년생 아속하다 원망 시간이 약이 된다.93년생 경제적 인땀침 꿈을 만들어가자.05년생 그럴 수 없다, 이유 강하게 지켜내자.

58년생 술한 잔 위로는 기운을 다시 하자.70년생 성장한 판단 차선으로 돌아서자.82년생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겨가자.94년생 낮은 조합 이어도 의리로 동행하자.06년생 사랑보다 덜컥한 고객을 들어보자.

59년생 어려운 요구도 기꺼이 받아주자.71년생 귀가 슬깃해지는 제안을 들어보자.83년생 여전히 불안해도 한 우물을 파보자.95년생 축하한다. 인사만세기 불러진다.07년생 같은 실수 반복 회초리를 맞이보자.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정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제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